

【1인 미디어 콘텐츠 기획 공모전】

콘텐츠 제작 기획안

한국체육대학교 교양교직과정정부에서 개최하는 공모전입니다.

※ 표식부분은 삭제 후 기재바랍니다. 모든 사항에 반드시 기재바랍니다.(미기재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제작 기획안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과 작성 방법은 자유입니다.

주제	‘요즘 인간’의 하루하루를 짧고 묘하게 기록한다. 커피를 사는 손, 혼잣말, 엘리베이터 안의 눈빛, 체육관 샤워실의 정적... 누구나 스쳐가는 일상 속 풍경을 ‘짧고 감각적인 시선’으로 재조명하는 영상 에세이 시리즈.
참가작품명	기록하는 인간
분야(장르)	웹다큐 × 브이로그
기획의도	우리는 대부분의 삶을 무심히 소비하며 산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다 담지 못할 감정, 장면, 생각들이 있다. 평범한 20대의 눈으로 바라본 ‘기록할 가치가 있는 사소함’들을 영상으로 남기고, 말로, 자막으로, 감정으로 풀어낸다.
작품내용	《기록하는 인간》은 일상 속 누구나 지나치는 사소한 장면과 감정을 포착해 짧은 영상과 내레이션으로 풀어내는 감성 웹다큐 시리즈입니다. 젊은 창작자의 섬세한 시선으로, 빠르게 흘러가는 현대 사회에서 ‘멈춤’, ‘침묵’, ‘흔적’, ‘무의식’ 등 비가시적인 요소들을 조명합니다. EP.1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 정류장, 벤치, 교정 한켠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표정 없는 표정 속에서 어떤 감정이 흐르고 있는지 상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EP.2 〈엘리베이터 7초〉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사람들.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꺼내든 핸드폰,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어색함과 작은 긴장.
짧은 7초가 남긴 잔상에 집중합니다.

EP.3 〈누군가 버리고 간 것들〉

거리 곳곳에 놓인 버려진 우산, 메모지, 커피컵.

이름 없는 사물들에 상상을 더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버림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존재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EP.4 〈혼잣말 아카이브〉

사람들의 혼잣말을 모읍니다.

누구에게도 들려줄 수 없었던 말들이
조용히 카메라 앞에 흘러나옵니다.
가장 솔직한 목소리는, 스스로에게 하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EP.5 〈밤의 체육관〉

늦은 밤 텅 빈 체육관에 남아있는 사람들.

연습, 복기, 실패, 혼잣말.

사람들이 없는 공간 속에서 운동하는 이들의 그림자가
묵묵히 자신의 싸움을 이어갑니다.

《기록하는 인간》은 말이 많지 않지만, 감정은 깊게 전해지는 영상입니다.

대사보다 눈빛, 설명보다 분위기로 감정을 전하며

빠르게 소비되는 콘텐츠 사이에서 '천천히 바라보는 힘'을 회복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게 하는, 감각적이고 철학적인 콘텐츠입니다.

이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들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